

안전의 뿌리에서 시작된 무재해

-한전산업개발(주)서천사업소-



▲ 권 용 준 소장

길을 따라 늘어선 포도밭에는 탐스럽게 열린 포도가 향긋한 내음으로 유혹한다.

달콤한 포도향을 따라 발길을 옮겨 도착한 곳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전산업개발(주)서천사업소(소장 권용준)이다.

한전산업개발(주)는 본사와 52개 사업장에서 전기검침, 발전소 발전설비 운전·정비, 석탄회 재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곳 서천사업소는 1995년 1월 개소된 이래 현재 서천화력발전소 제 1, 2호기 상·하단 설비운전, 회처리 설비운전, 배연탈황 설비운전 역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재해·무사고 사업소」 구현 아래 지난 6월 21일 한전산업개발(주)의 10개 사업소 중 5번째로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하였다.

■ 준비된 자세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 적극적으로 생활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의 생활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권용준 소장은 굳이 안전을 내세우지 않는다. 안전이야말로 기업의 밑바탕에 깔려 기업을 지탱해주는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집중안전 포커스

권용준 소장은 「안전은 100%일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항상 강조한다. 99.9%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0.1%의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공장이 점차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러한 설비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결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찰·점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항상 안전을 몸에 담고 있어야 함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해빙기·하절기·동절기 등 계절적인 영향이 큰 이곳은 계절별로 노후 및 취약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등 유해·위험요인 제거에 만전을 다한다. 또한, 지속적인 설비개선 및 주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적시에 개선하는 등 설비의 안전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 안전 포스터·표어 공모전으로 경각심 일깨워

한전산업개발(주) 서천사업소는 산업안전보건장조기간에 아차사고사례 발표회를 개최함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자를 포상하는 등 전직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과 동시에 자율안전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공모전에서는 총 92명의 직원에게서 84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을 만큼 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수상된 작품은 현장에 전시되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확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근로자 모두가 소장님


서천사업소에서는 근로자 모두가 소장님이다. 전직원이 1주일 1회 소장님이 되어 안전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1일 안전소장제」가 마련되어 있어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요인들을 보다 앞선 자리에서 체험함으로써 위험요인을 발견·시정하고 한차원 높은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활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품질·설비 개선 등의 현장 안전활동 실적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이를 누적시켜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이에 따라 안전활동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전직원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안전은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설비를 다루어야만 안전을 보장받습니다.’라는 권용준 소장의 말에서 서천사업소 모든 식구들이 나부터 시작하는 주인의식에 걸맞는 안전관리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이 뿌리내린 한전산업개발(주)서천사업소라

는 나무에 무사고의 꽃이, 무재해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원한다. 

〈성호연기자〉

